

## 朴淵의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說話移住의 양상과 의미

金承鎬

(東國大 教授)

### 要約 및 抄錄

김승호, 2018. 박연의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설화이주의 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180 : 119~139 본고에서는 개성의 박연(朴淵)에 노힐부득 달달박박의 석불이 조성된 까닭이 무엇인지를 설화 전승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박연에 얽힌 설화들을 통사적으로 점검한 결과, 남백월이성(南白月二聖) 담이 큰 변이없이 개성권에 전승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담(二聖談)이 개성권으로 이주(移住)한 점을 두고는 3가지 측면에서 타진하였다. 우선 이성(二聖)의 백월산(白月山) 수행처와 박연 주위의 경관, 입지가 유사한 탓에 이성담이 개성권(開城圈)에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로 개성의 이성담은 선행 연기담에 편승하는 창사(創寺)설화의 속성과 관련된다고 판단했다. 즉 개성권의 신생 사찰의 연기(緣起) 담당층이 앞서 남백월이성담의 신성(神聖), 영험(靈驗)적 발현기능에 주목하는 한편 그를 전범으로 삼아 창사 유래를 마련한 흔적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원래 창원(昌原)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의 연기담이었던 이성담이 개성까지 확장된 전승사적 이면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

核心語: 노힐부득, 달달박박, 南白月二聖談, 朴淵, 二聖像, 觀音菩薩

### I. 문제제기

『三國遺事』 소재 努盼夫得 怛怛朴朴 이야기<sup>1)</sup>는 문학성이 높은 成佛談

1) 一然,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으로 일찍부터 이목을 사로 잡아왔다. 民女로 현응한 觀音菩薩이 야밤에 나타나 노힐부득, 달달박박의 器量을 시험한 뒤 根機에 따라 성불로 인도했다는 내용은 흥미유발과 함께 불교의 宗旨를 잘 구현한 서사라는 好評을 끌어냈다.<sup>2)</sup> 그런데 높은 문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담론의 기능은 昌原 白月山南寺의 創寺由來를 밝히는 연기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야기의 말미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기리기 위해 白月山南寺가 세워지고 그곳에 二聖의 像이 각각 안치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白月山, 白月山南寺, 그리고 그에 봉안된 彌勒佛, 阿彌陀佛은 南白月二聖談의 내용과 대응된 현실 공간 내 증거물인 셈인데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성불로 말미암아 이들 佛蹟은 남다른 神聖性和 聖所性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설의 발화처와 동떨어진 개성의 朴淵에 노힐·달달의 석불이 등장함으로써 백월산남사의 창사 의미가 퇴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평소 사람의 出入이 잦은 곳에 노힐·달달의 상을 세운 것은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건립 지점이 엉뚱하다. 白月山이 자리한 昌原圈이라면 몰라도 緣故가 없는 개성에 노힐·달달이 들어선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본고는 설화가 발화 지점을 벗어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 二聖像이 조성된 까닭을 궁리해 보는 데 뜻을 둔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박연과 그 주변의 설화를 총집하여 박연과 二聖 간과의 설화적 연관성 有無를 점검할 것이다. 이외 논의 점을 인근 설화의 배경적 특성, 불교 설화 특유의 引用과 附着방식, 二聖談의 민담적 속성 등에 맞추어 二聖談의 개성이주 현상이 지닌 설화 전승의 이면과 특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2) 權相老(1949), 『朝鮮文學史』, 一般 프린트사, p.169.

黃浪江(1986), 『新羅佛教說話研究』, 일지사, p.66.

史在東(1996), 『佛教系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p.552.

車溶柱(1989), 『韓國漢文小說史』, 아세아문화사, p.35.

朴熙秉(1997),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p.69.

3) 『三國遺事』의 여러 篇目 중에서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이야기가 塔像 條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塔像 편목은 법당, 불상, 탑, 사리 등 31개의 불교 유적, 유물에 대한 沿革과 由來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各篇들에 불보살, 승려, 사부대중의 등장과 함께 흥미롭고 기이한 사건이 개입되고 있으나 결국 서사의 취지는 遺蹟, 遺物의 내력을 천명하는데 놓여있다. 노힐·달달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이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 백월산남사의 創建 起源을 추적하는 것이다.

## II. 朴淵설화의 범위와 특성

노힐·달달의 상이 원래 전설의 말화처를 벗어나 박연 위에 세워진 점을 두고 먼저 의문을 제기했던 이는 근대기 미술사가로 명성이 높았던 高裕燮이다. 그는 노힐과 달달의 像이 成佛 현장을 멀리 이탈하여 개성의 朴淵 바로 위에 있음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二聖과 박연을 매개하는 설화에 근거하여 박연에 二聖像이 세워졌다고 예상했다.<sup>4)</sup> 개성권의 역사물, 遺物鑑識에 조예가 깊었던 이의 진단이므로 경청할 여지가 적지 않은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박연이 부연된 설화들, 특히 노힐과 달달이 개입된 설화를 폭넓게 추적하고자 한다. 제 문헌에 등장하는 박연, 박연폭폭, 노힐·달달 석불 관련 기록을 통사적으로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㉞ 朴淵에 題하다. 옛날 朴進士란 사람이 못가에서 피리를 부니, 龍女가 그 피리 소리에 반하여 저의 본 남편을 죽이고 박 진사에게 시집갔으므로, 이 못을 박연이라 이름했다 한다. (昔有朴進士者 吹笛於淵上 龍女感之 殺其夫 引之爲壻 故號朴淵)

피리 소리에 반한 용녀 선생께 시집오니 / 龍娘感笛嫁先生  
오래 세월 그 정열 즐겁기만 하였겠지 / 百載同歡便適情  
그래도 임공의 새 과부가 / 猶勝臨邛新寡婦  
거문고 소리에 미쳐 달려온 것보다는 나오리 / 失身都爲聽琴聲<sup>5)</sup>

㉟ 사람들 말하길, 이곳은 신물이 의탁한 곳이라고 / 人言神物之所托  
맑고 깊은 한가득의 물을 석벽에 쏟아 붓네 / 宏蓄清深瀉石壁  
석벽 깎아지른 천길 낭떠러지에 폭포가 걸렸으니 / 壁立斷崖千仞飛流懸  
마치 은하수가 푸른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구나 / 有如銀漢來青天  
창공을 울리는 소리 용의 읊조림을 듣는 듯하고 / 隱空似聽水龍吟

4) 高裕燮(1988), 『松都의 古蹟』, 열화당, p.184.

5)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제14권, 古律詩, <題朴淵瀑布>

진주 쪼고 옥을 부쉬 췌췌 만길 높이로다 / 珠春玉碎颺颺分萬尋  
 용이 보물을 품고 그 못에 잠겼으니 / 龍應抱寶潛其淵  
 음침한 골짜기엔 대낮에도 늘 구름 연기 자욱하네 / 陰壑白日常雲煙  
 일찍이 들으니 임금 수레 이곳을 지나갔다니 / 嘗聞玉輦此經過  
 박씨는 정말 은사였던가 보다 / 朴人定是考槃阿  
 지금까지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 至今名字傳不記  
 이현의 득도 순서 신비로운 설화로세 / 二賢緩急說神異<sup>6)</sup>

㉞ 그 위에 용추가 있어 이름은 朴淵인데, (중략) 半空의 벽을 내리 흘러 姑潭으로 떨어지자 흩어져 만 필의 배와 숲이 되어 골짜기에 뿌리고, 땅덩이를 뒤흔들어 마치 은하수가 휘어져 땅에 쫓은 것 같으니 놀랍고도 무서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못의 중심에 돌이 있어 반쯤 나왔는데, 형상은 거북이 었던 것 같으며, 정상에는 3·4명이 앉을 만하다. 역사에 이르기를, “고려 文宗이 올라 앉았는데, 풍량이 갑자기 일어나며 용이 나와서 돌을 흔들기로 李靈幹이 글을 써서 던지어 용을 내리쳤다.”하였다. (중략) 다시 백여 보를 올라가니 좌우 양쪽 비탈에 각각 돌부처 하나가 있는데, 俗談에 전하기를, “부득박박(夫得朴朴)이라.” 한다.<sup>7)</sup>

㉟ 전설에 옛날 朴進士라는 사람이 피리를 못 위에서 부니 용녀가 감동하여 데려다 남편을 삼았으므로 박연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중략) 그 어머니가 와서 울다가 못으로 떨어져 죽어서 姑母潭이라고 이름하였다. 못 위에 신사가 있는데 가물 때 비를 빌면 대양 영험이 있다. 고려조의 문종이 일찍이 이곳에 와서 놀다가 도암 위에 올라갔는데, 문득 풍우가 갑자기 일어나고 돌이 흔들리니 文宗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때 李靈幹이 호종하였다가 글을 지어, 용의 죄목을

6) 白文寶, 『淡庵逸集』 제1권, 詩, <朴淵瀑布行>

7) 俞好仁, 『續東文選』 제21권, 錄, <遊松都錄> “上有龍湫曰朴淵。(중략) 瀉壁半空而墜于姑潭。散而爲萬匹練。灑洒林巒。掀撼坤軸。若銀河折而挿于地。可驚可愕。殆不可近。淵心有石。半出伏如曝龜。頂可用三四人。史傳。高麗文宗嘗登。風浪忽起。有物掀簸之。李靈幹投文鞭龍云。(중략) 更上百步。左右兩崖。各安石佛一軀。俗傳夫得朴朴。”

들어 책망하며 못에 던지니 용이 곧 그 등을 드러내므로 매를 때리니 못물이 다 붉어졌다 한다. 못 위 양쪽 언덕에 석불이 있는데, 동쪽의 것은 달달박박이라 하고, 서쪽의 것은 노힐부득이라 한다.<sup>8)</sup>

㉞ 觀音窟을 지나 물이 4,5리 사이에 맑은 물에 백석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동서 양편으로 석불 하나 씩 안치했는데 동쪽 것을 노힐부득, 서쪽 것을 달달박박이라 했다. 지난 병인년에 개성의 儒生이 박박을 깨뜨려 오직 부득만이 남았다. 십여 리를 내려가면 곧 박연이다. (중략) 옛날 고려 文宗이 이곳에 올랐는데 갑자기 바람과 우레가 바위를 흔드는 변괴가 일었는데 李堅幹이 祝法으로 용을 때려쳤다 한다.<sup>9)</sup>

㉟ 大興寺를 지나 觀音窟에 당도하니, 굴 앞에 마치 房室처럼 생긴 바위가 있고 두 石人이 서 있는데 관음이라 하였다. (중략) 지세가 평평한 곳에서는 물이 깊고 검푸르며 지세가 험준한 곳에서는 물이 거품을 일으키고 희니, 바로 청심담이니 妓潭이니 馬潭이니 龜潭이니 하는 것들로, 갖가지 자태가 모두 기질하다. 이것이 바로 大興洞의 泉石이다. 이른바 박연이란 곳에 이르니, 두 산의 중간이 갈라져 마치 巨靈이 쪼개어 놓은 듯하고 天門이 입을 딱 벌려 만고의 神宅을 이루고 있으며, 마치 향아리를 갈라놓은 듯한 모양의 큰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용이 산다고 하였다. (중략) 세상에 전해지는 얘기로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上潭에서 젖대를 불자 용녀가 감동하여 그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그 어머니가 슬피 우니 下潭에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래서 상담을 박연이라 하고 하담을 姑母潭이라 한다고 하니, 또한 기이한 일이다.<sup>10)</sup>

- 8) 『新增東國輿地勝覽』 제42권, 黃海道, 牛峯縣 山川, 靈鷲山.  
 “世傳昔有朴進士者。吹笛淵上。龍女引之爲夫。故名朴淵。朴之母來哭。墜死下潭。遂名姑母潭。(중략)其母來哭墜死下潭。遂名姑母潭。淵上有神祠。遇早禱雨輒應。高麗文宗嘗遊此登島巖上。忽風雨暴作石震動。文宗驚怖。時李靈幹扈從。作書數龍之罪。投于淵。龍卽出其脊。乃杖之。淵水爲之盡赤。淵上兩崖有石佛。東曰恒恒朴朴。西曰努盼夫得。”
- 9) 林芸, 『瞻慕堂先生文集』 卷之二, 錄, <遊天磨錄>  
 “北折趨下。過觀音窟。沿流四五里間。清川白石。比比可坐。東西兩岸。安石佛各一軀。東曰弩盼夫得。西曰恒恒朴朴。往在丙寅。開城儒生。擊破朴朴。惟夫得存焉。下十餘步。卽朴淵也。(중략) 昔高麗文宗登此。忽有風雷振石之變。李堅幹用祝法鞭龍云。”

㉞ 박연은 天摩와 聖居 兩山사이에 있는데 절벽을 따라 수백 장 아래도 물이 떨어져 큰 폭포를 이루고 아래 위 물이 모여 맑고도 푸르다. 전하는 말로는 옛날 박 선비가 박연 위에서 피리를 불자 龍女가 유혹하여 못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그 처가 통곡하다가 절벽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위 못을 朴淵이라 하고 아래 못을 姑母潭이라 한다. (중략) 박연 위에 있는 바위굴에는 석불이 있으니 동쪽을 달달박박, 서쪽을 노힐부득이라 한다.<sup>11)</sup>

박연설화, 노힐·달달 像에 대한 증언의 사례들을 제 자료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二聖과 연관된 구비전승이 달리 없으므로 유람객들이 남긴 상기 기록은 박연과 노힐부득, 달달박박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단서로 삼을 만하다.

박연 설화를 처음으로 알린 인물은 李奎報(1168-1241)이다. 그의 古律詩 <題朴淵瀑布>에 “옛날 박진사란 사람이 못가에서 피리를 부니 龍女가 그 피리소리에 반하여 저의 남편을 죽이고 박 진사에게 시집갔으므로 이 못을 박연이라 이름했다.”고 한 설명이 충격적이다. 사랑하는 외간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 살인도 불사했다는 전언은 남녀관계가 한층 자유로웠던 고려 시기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가 싶다. 어쨌든 ‘박연’의 유래를 밝히는 가장 앞선 자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二聖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고려 말 문인 白文寶(1303-1374)도 박연폭포를 제재로 삼아 ㉟ <朴淵瀑布行>를 남긴 인물이다. 그 시구 가운데 “二賢緩急說神異 (二賢 득도 순서 신비로운 설화로세)”는 같이 수행에 집중했음에도 노힐부득이 앞서 彌勒佛

10) 李廷龜, 『月沙集』 제38권, 記下, <遊朴淵記>

“歷大興寺。至觀音窟。窟前有巖如屋。二石人立。號爲觀音。(중략) 平者深黑。峻者沸白。其曰清心潭。妓潭。馬潭。龜潭者是。而殊狀異態。皆奇絕。此卽大興洞泉石也。至所謂朴淵。則兩山中拆。若劈巨靈。天門呀然。爲萬古神宅。大石如剖甕。有龍居之。(중략) 世傳朴姓人吹笛於上潭。龍女感而攬之入。其母哭之。墜於下潭。以故上爲朴淵。下爲姑母潭云。亦異矣。”

11)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之四, 地行附錄, <天摩, 聖居>

“朴淵。在天摩聖居兩山間。從絕壁數百丈直下落空。爲大瀑。上下水積澄碧。諺傳古有朴儒。吹笛其上。爲龍女所誘。入潭不返。其妻號泣投崖死。故上曰朴淵。下曰姑母潭。(중략) 淵上巖竇。有石佛。東曰怛怛朴朴。西曰弩盼夫得。”

이 되고 그 후에 달달박박이 阿彌陀佛이 된 것을 가리킨다. 백문보가 노힐부득 달달박박의 성불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었다 할 수 있다. 박연폭포를 구경한 후 박연 위에 당도하여 二聖像을 대하는 순간, 설화를 새삼스럽게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환기했던 설화가 南白月 二聖談인지 아니면 개성 근역에 퍼져있던 변이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박연과 관련된 여러 증언 가운데 노힐·달달의 성불담을 지엽적으로나마 확인시켜주고 있는 드문 사례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박연폭포는 시문 창작의 제재로 널리 수용된다. ㉠ 俞好仁 (1445-1494)의 <遊松都錄>은 박연과 그 주변 풍경을 상세히 밝힌 다음 문중 관련 이적담과 二聖像의 존치 사실을 보고한다. 다른 곳과 달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부득박박’으로 줄여 불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는 『新增東國輿地勝覽』 제42권, 황해도 牛峯縣 山川 篇에 올라 있는 대목이다. 박진사와 용녀의 결연담은 다른 기록과 부합되지만 여기서는 박진사의 모가 아들을 잃어 상심하다가 못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고모담이란 이름이 생겼다했다. 그리고 못에 살던 용이 고모담의 바위에 오른 문중에게 행패를 부리자 시종인 李靈幹이 죄를 책망하면서 격퇴시킨 奇譚를 보태고 있다. 즉 문중이 당황해하는 그 순간에 이영간이 祝文을 던지고 용을 가 격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으나 이 설화는 용이 姑姆潭에 조용히 은거하는 것을 넘어서 그 힘을 과시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용이 물 밖 세계와 늘 親和的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로써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이 姑姆潭 용에 대한 민중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일기가 불순하고 재앙이 닥치면 고모담, 박연을 찾아 치성을 들었으니 그 대상은 물론 못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용이었다.<sup>12)</sup> 노힐부득, 달달박박에 대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은 동쪽 것을 달달박박, 서쪽 것을 달달박박으로 칭한 사실만 적시하고 있다.

㉢는 林芸(1517-1572)의 <遊天磨錄>중의 한 대목이다. 노힐부득 달달박

12) 丁若鏞, 『與猶全書』, 第六集 地理集 第八卷, 大東水經 其四.  
“高麗史地理志云. 牛峯郡. 有朴淵. 上下淵深皆不測. 遇早禱雨. 輒應.”

박 상은 관음굴을 거쳐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계곡의 동쪽에 선 것을 노힐 부득, 서쪽에 선 것을 달달박박이라 했다. 그런데 병인년(1566)에 개성에 사는 어느 儒生이 서쪽의 달달박박을 깨뜨리는 바람에 임운이 목격한 것은 노힐부득 석불 하나뿐이었다. 유생이 왜 달달박박을 파괴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달아놓지 않았으나 일부 儒者들 사이에서 二聖 像을 대하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음이 드러난다.<sup>13)</sup>

㉞李廷龜(1564-1635)의 <遊朴淵記>는 林芸의 <遊天磨錄>에 이어 등장한 기행문이다. <遊朴淵記>에는 박연 위에 위치한 관음굴의 주변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펼쳐진다. 그중에서 특기할 것은 관음굴 앞에 두 관음불상이 서 있더라는 증언으로 인근에 있는 노힐·달달 두 상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예부터 朴淵에 龍이 산다고 믿어온 까닭을 밝혀주려는 듯 박연은 물론 그 주변에 대한 묘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연설화는 다른 소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식을 볼 수 없게 된 박생의 모를 용녀가 못으로 밀쳐서 죽이는 것으로 내용적 變異가 일어난다. 박연을 찾았던 이라면 누구나 마주쳤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遊朴淵記>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林芸은 하나 남은 노힐부득 상이나마 볼 수 있었으나 그것마저 사라져 버린 것인가,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

李萬敷(1664-1732)는 李廷龜보다 한 세기 늦게 박연을 찾은 인물로 二聖 像의 종적과 관련하여 그가 쓴 ㉟ <地行附錄 /天磨,聖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추측한대로 여기서도 박연의 명칭유래가 소개된다. 즉 “박 선비의 피리소리에 감동한 용녀가 그를 유혹해 못으로 데려갔으며 이에 비통해하던 박 선비의 아내가 못에 몸을 던졌으므로 박연이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임운의 소개에 따르면 박생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용녀였다. 그런데 李萬敷에 이르면 박선비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내용적 변이가 발생한다. <지행부록/천마 성거>에 수록된 二聖관련 증언은 여러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앞서 임운이 말 한 대로 노힐부득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아니면 두

13) 林芸이 朴淵을 찾은 때는 中宗 재위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도 抑佛策의 기초는 바뀌지 않았으나 妖僧, 巫家를 추방하는가 하면 사찰 건립을 일절 금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달달박박 像의 파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유자의 일탈행위가 아닐까 여겨진다.

석상이 모두 사라졌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만부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를 보면 파괴된 달달박박의 석불이 복원되지 않았나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까지 노힐, 달달 석상과 근접해 있는 박연, 고모담에 얽힌 설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李奎報, 白文寶, 俞好仁, 『東國輿地勝覽』, 林芸, 李廷龜, 李萬敷의 기록 어디에서도 박연과 이성이 결부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박연설화는 박연, 고모담의 명칭 유래위주로 전개되었으며 한결같이 용이 개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노힐·달달의 석불이 박연에 위치하고 있어 二聖과 박연을 매개하는 설화를 염두에 두었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설화적으로 二聖像은 박연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노힐부득, 달달박박 석불의 존치사실을 전하면서도 유람객들은 왜 노힐부득 달달박박이 개성에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힐·달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 相應하는 전설이 있다는 뜻이 되겠으나 이제까지 본 바는 그렇지 않다.

高裕燮이 추정한 대로 박연과 이성을 포괄하는 설화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왜 개성지역에 二聖설화가 정착되었는지 그가 내놓은 원인 분석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昌原의 白月山과 개성의 聖居山, 大興洞 계곡이 地形, 立地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고 했다. 곧 박연 폭포아래 雲居寺는 백월산의 東嶺 磊石寺 아래, 즉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했던 夫得의 수행 암자에 비견되며 성거산 북쪽 아래 開聖庵 八尺房은 백월산 北嶺 獅子巖 아래 朴朴의 板屋 八尺房의 터와 배합됨을 지적하였다.<sup>14)</sup> 원래 설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백월산내 二聖의 수도처가 개성 대흥동 주변의 못, 사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語音, 語義의 측면에서 박박에서 박은 ㅍ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박연은 ㅍ淵 즉 미타가 된 박박의 淵이라 했으며 夫得이 산모를 목욕시켰던 浴槽가 槽淵으로, 이것이 다시 朴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내놓았다.<sup>15)</sup> 박연폭포가 위치한 천마성거산 인근의 지형에 누구보다 밝은데다 답사를 거친 끝의 진단이라는 점

14) 高裕燮(1988), 앞의 책, p.186.

15) 高裕燮(1988), 앞의 책, p.186.

에서 경청할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로써 박연과 二聖을 에워싼 의문이 전부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힐·달달의 석불은 존재하는데 비해 그 부연담의 정체는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박연과 二聖像에 얽힌 별도의 설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白月山の 二聖 이야기가 두 수도자의 成佛化 과정을 담은 불교설화에 속하지만 살핀 것처럼 박연에 부연된 이야기들은 불교설화와는 거리가 먼 민중설화뿐이다. 따라서 노힐부득 달달박박의 개성 移住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연에만 머물지 말고 天摩·聖居山, 觀音窟, 圓通寺 등으로 검토 대상을 넓힌다면 좀 더 수궁할만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Ⅲ. 二聖설화의 移住와 附着양상

박연 이외에도 二聖과 결부시켜 논의할 설화적 대상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許穆(1595-1682)과 李萬敷는 聖居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聖居山은 고구려의 九龍山으로 혹은 낙랑의 平那山이라고 말하는데 산정에 國祖祠가 있어서 성거산으로 부른다. 산의 남북으로 두 聖居가 있으며 산의 북, 거, 남쪽으로 세 桑靈이 있으니 모두 절 이름이다.<sup>16)</sup>

聖居山에는 두 개의 聖居寺가 있으며 세 개의 桑靈寺가 있으니 다섯 개의 절이 있다. 북성거산 위에는 法達窟이 있으니 쇠고리를 잡고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의 북쪽에 國祖祠堂이 있으며 북성거사 아래로 圓通寺가 있다.<sup>17)</sup>

16) 許穆, 『記言』, <聖居天摩古事>

“聖居者。句麗之九龍山。或曰。樂浪之平那山。山有國祖祀。號曰聖居山。山南北二聖居。北西南。三桑靈。皆蘭若名。”

17)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之四, 行附錄, <天摩聖居>

천마·성거는 개성에서 오십 리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二聖居’로서 북성거사, 남성거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애초 성거는 國祖神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부처나 보살, 혹은 覺者를 뜻하는 것이어서 백월산의 二聖과는 함의하는 바가 다르다. 二聖을 포함하여 3 桑靈의 유래를 살피는 데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듯싶다.

바위에는 별을 가린 흔적이 있었다. 思湜이 말하길 “이곳은 五聖의 모였던 장소입니다.”라 했다. 내가 “五聖이란 어떤 사람들이요.”라 묻자, 사식이 말하길 “옛날 다섯 성인으로 이 산 정상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마음을 다해 도를 닦았으나 오래되어 그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성으로 그 암자 이름을 삼았으니 지금의 南雙蓮, 西聖居, 北雙蓮, 南聖居, 北聖居 등의 암자가 그것입니다. 이 산 이름이 성거라는 것이 미심쩍지만 역시 이 때문입니다.”라 했다. 이때 서쪽 끝으로 남북 聖居庵이 내려다 보였다.<sup>18)</sup>

이는 몇 사람을 대동하고 松都유람에 나섰던 南孝溫(1454~1492)이 聖居山の 명칭유래를 묻자 승려가 답해주는 대목이다. 南孝溫은 許穆(1595~1682)이나 李萬敷보다 앞서 개성을 찾았다. 그 때문에 그의 기록은 한층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면 ‘聖居’란 말은 그 산에 올라 용맹정진했던 5 修行者를 일컫는다. 조선 초까지 ‘성거’란 國祖神과는 무관한 용어로 밝혀진다. 성거산이 속세를 벗어난 수행자들이 모여들어 正覺을 이루고 마침내 성불한 터라는 점에서 노힐·달달의 修行處였던 백월산에 못지않은 聖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겠다.

南白月二聖 설화의 말미에 이르면 두 修行僧을 성불로 인도한 이가 관음보살로 밝혀진다. 노힐과 달달이 俗世와 결연하고 修行과 持戒로 스스로를

“聖居有二聖居。三桑靈。五蘭若。北聖居上法達窟。有鐵鉤攀登絕頂。絕頂北國祖祠。南聖居下圓通寺。”

18) 南孝溫, 『秋江集』, 秋江先生文集卷之六, 雜著, <松京錄>

“巖有遮日跡。思湜曰。此五聖會處。余曰。五聖者何人耶。思湜曰。古之五聖人。上此山頂結艸廬。精盡化道於此。歲久不知其名。但以五聖號其庵。今之南雙蓮。西聖居。北雙蓮。南聖居。北聖居等庵是也。此山之名爲聖居。疑亦以此故也。時西邊俯視南北聖居二庵。”

물고 갔다 해서 성불을 쟁취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음보살이 연민의 정을 갖고 이들의 助力者가 됨으로써 二僧은 바라던 대로 부처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점에서 노힐·달달과 함께 관음보살의 자취를 알리는 遺跡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월산의 佛蹟은 노힐과 달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비할 때 開城인근으로는 觀音의 功德을 기리는 사찰이 많다 하겠는데 二聖談과 관련해 이들의 연기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노힐·달달 설화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만한 사찰로는 觀音窟과 圓通寺를 꼽을 수 있다. 寺名으로서 ‘觀音’이나 ‘圓通’이란 용어<sup>19)</sup>부터가 二聖의 조력자로 나선 관음보살을 떠올리게 한다. 觀音窟은 고려 광종 11년 1271에 法印國사가 開山한 사찰로 관음의 공덕과 자비심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찰이다.<sup>20)</sup> 한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박연에 노힐·달달 석불이 위치하고 있어 그들을 성불로 인도한 관음보살을 잊지 않기 위해 지은 절이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圓通寺의 경우는 二聖의 성불담과 관련해 한층 주목되는 바, 許穆의 <聖居天摩古事>에서 우리는 원통사의 창건내력을 찾을 수 있다.

남쪽 聖居山 아래에는 圓通寺가 있다. 圓通은 옛 尋跡寺의 승려이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옛 사람이 觀音菩薩의 자취를 얻어서 부처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圓通)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이 圓通寺를 지었는데 산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sup>21)</sup>

원통사 연기는 開城圈의 어떤 사찰연기보다 昌原 백월산남사 창사담과

19) 『불교용어사전』(1998), 경인문화사, p.1261.

“圓通’은 ‘관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楞嚴會에 있어서의 25보살 가운데 관음의 耳根圓通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 데서 전하여 ‘원통’이 ‘관음’의 별칭이 되었다.”

20) 전등사(1932), 『전등사본말사지』, p.195.

21) 許穆, 『記言』, <聖居 天摩古事>

“南聖居下。圓通寺。圓通者。古尋跡寺浮屠。人相傳古人得觀音佛跡。化爲佛。有此名云。後人作圓通寺。最在山中。”

강한 근친성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관음이 응현하여 수행자를 부처가 되게끔 이끌었다는 내용 때문이다. 본래 이야기는 南白月二聖談과 같이 民女로 현응한 관음보살이 두 수행승을 인도하여 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했다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尋跡寺의 원통이 치열하게 정진, 수행을 이어나갔다고는 하나 관음보살의 도움이 없이도 바란대로 성불에 이를 수 있었을지 불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助力者로서 관음보살의 功德을 기리는 일은 當爲의이다. 특히 寺名을 ‘圓通’으로 한 것은 그 점에서 꼭 적절하다 하겠는데 원통스님의 발원 의지와 함께 관음보살의 應現을 동시에 환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추론을 더 밀고 나간다면 원통사, 그리고 박연의 二聖像은 南白月二聖談의 등장인물들을 숭배하기 위한 대응물로 여길 수가 있다. 현전 자료로 볼 때 원통사 연기는 南白月二聖談과 가장 유사한 내용 요소를 갖추고 있다.<sup>22)</sup> 圓通寺가 고려 초에 창건된 절임을 감안한다면 圓通寺 創建緣起가 남백월이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IV. 二聖설화의 廣布化 현상과 그 원인

설화자료를 일별해본 결과, 개성의 박연과 二聖이 연관된 설화는 찾을 수 없었다. 圓通寺 등 일부 절의 연거나 寺名<sup>23)</sup>이 二聖談의 내용과 부합되기는 하지만 박연의 二聖의 석불을 해명할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南白月二聖談이 어느 단계에서 廣布說話로 이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한다. 앞에서 잠시 본 白文寶의 <朴淵瀑布行>을 다시 상기하자면, 거기서 말하는 ‘二賢緩急’이 『三國遺事』 노힐부득 달달박박 조의 내

- 22) 원통사와 백월산남사의 연기는 수행자 앞에 관음보살이 顯應하여 수행자를 성불로 이끌어주었다는 핵심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백월산남사 연기는 신라시기에 파진 백월산남사 연기가 고려 초 건립된 원통사 연기형성에 源流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23) 가령 聖居山의 남쪽에 있던 金身寺, 金身窟은 충분히 南白月二聖談과 연계시켜 볼만하다. 즉 ‘金身’이 관음이 시키는 대로 노힐이 옥조 물에 몸을 담근 뒤 金佛로 먼저 변하고 뒤이어 달달이 또한 金佛로 변한 것을 환기시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附帶설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용에 따른 것인지 개성권에 퍼져 있던 변이담으로서 二聖談을 바탕에 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검토를 종합한다면 신라 聖德王 시절 백월산 권역에서 발원한 二聖談이 전승권을 개성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백문보는 사람들이 노힐, 달달의 성불담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굳이 별다른 부연없이 ‘二賢緩急’의 표현으로 그친 것이다.

이쯤해서 사찰연기 전승에 나타나는 共有化, 혹은 自己化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노힐, 달달 이야기가 개성에 정착한 까닭을 해명하는 데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령 美黃寺 연기설화는 海南圈에서 이른 시기에 형성된 사찰연기인데 뒤에 등장하는 사찰들의 창사연기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sup>24)</sup> 천축에서 출발한 돌배가 불상과 경전 등을 가득 싣고 大海를 漂浪한 끝에 달마산에 佛性이 농후한 것을 보고 정박하게 된다. 그런 후 불상을 옮기던 소가 무릎 꿇은 자리에 절을 세워 불상을 봉안했다는 것인데 해남권의 신생사찰이라 할 法藏寺, 大屯寺, 觀音寺 등의 창사유래에도 그와 흡사한 내용이 따라 붙는다. 美黃寺 창사연기가 石船이란 역사적 모티브를 삽입한데다 소에 의한 절터 점지라는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후발 사찰들이 이를 모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寺衆들은 기존의 연기에 편승하는 것이 절의 영험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寺名을 근거로 先行 창사연기에 편승하는 경우도 보인다. 瑞山 浮石寺에 서는 創主를 義湘으로 내세운다. 그러면서 조력자로 대사를 사모했으나 결연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善妙 처녀의 희생적 자취를 부각시킨다. 죽은 뒤 의상의 保護龍이 된 선묘가 휘방꾼을 물리치고 세운 절이 浮石寺라는 것이다.<sup>25)</sup> 그리고 절 앞 10km 지점의 돌출된 바위섬이 절 창건 당시 선묘가 몸을 바꿔 악당을 물리쳤던 그 바위임을 환기시킨다. 증거물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浮石寺연기로 수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24) 金承鎬(2018), 「해안권 창사연기담의 일고찰: 문헌소재 石船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pp.55-56.

25) 李孤雲·林雪山(1993), 『명산고찰 따라』 상, 운주사, p.350.

보호룡이 된 선묘가 다시 거석으로 변신해 저항하는 무리를 패퇴시키고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는 것은 온전히 榮州 浮石寺에서만 해당되는 창사내력이다. 대웅전 아래 횡으로 누운 巨石, 경내의 善妙閣 또한 『宋高僧傳』<sup>26)</sup>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영주 부석사에만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瑞山 浮石寺에서 선묘가 巨石으로 몸을 바꾸는 변신 모티브를 차용해 자신들의 창사연기담으로 전용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불교설화, 그 중에도 창사연기의 담론적 속성을 주목한다면, 타 연기의 인용과 부착을 무조건 唾棄視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창사연기라면 사찰의 起源을 포함, 깊은 淵源性을 구비한 담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寺衆들은 寺格을 높이고 부처의 가르침을 宣揚할 수만 있다면 기존 연기담에 편승하는 것마저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인용과 模倣의 대상으로서 연기담을 선택하는 데도 기준이 있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티브 등을 갖추고 있을수록 借用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南白月二聖談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이는 寺衆이나 民衆 모두의 호감을 얻으며 전승력을 유지해 나갔던 바, 원통사 연기에서 보듯 개성권 사찰들의 창사연기를 推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설화의 광포화는 물론 당대의 분위기와도 연관될 터인데 관음신앙에 대한 고려시대의 높은 열기<sup>27)</sup> 二聖과 觀音 설화의 전승력을 한껏 뒷받침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二聖談이 개성권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 그 주제의 심오함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곧 二聖談은 흥미적 요소를 갖추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적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구현하고 있는 설화이다. 二聖談은 왜 두 사람은 부처가 되기 위해 인간힘을 다하는가. 皆有佛性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이 먼저 부처가 될 수 있나 등등 사람들의 궁금증을 전제하고 대조적인 성향을 가진 두 인물을 통해 진정한 부처의 길이 무엇인지 넉넉히 알린다. 同伴成道로 끝맺는 好終의 처리며 隨順衆生이 부처의 길에 다름 아님을 강조하는

26) 贊寧, 『宋高僧傳』, <唐新羅國義湘傳>

27) 李萬(1988), 「고려시대의 관음신앙」, 『한국 관음신앙 연구』, 동국대 출판부, p.157.

주제 현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28)</sup>

이밖에도 서사 구조적 측면에서 二聖談의 개성 이주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南白月二聖의 夾註는 이 설화가 민담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전제해준다. 협주에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가리켜 각각 심성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 하면서 “두 선비의 마음과 행동이 騰騰하고 苦節하다는 두 가지 뜻에서 이렇게 이르는 것.”이라는 해설이 들어있다. 노힐부득을 ‘騰騰’하다고 했는데 이는 ‘緩慢’과 통한다.<sup>29)</sup> 즉 심성이 부드럽고 느그럽다는 뜻이다. 달달박박을 ‘苦節’하다고 했는데 이는 ‘역경의 상황에서도 지조를 지켜냄’을 가리킨다.<sup>30)</sup> 협주의 해설같이 노힐과 달달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대조적인 품성을 말해주는 일반명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sup>31)</sup> 南白月二聖談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향의 노힐부득, 차갑고 쌀쌀맞은 성향의 달달박박을 대조적으로 배치하고 둘 중에서 누가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민담의 구도와 상통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sup>32)</sup>

남백월이성담은 여러 情報單位를 부연시켜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대조적인 품성제시, 성불을 전제로 한 겨루기 방식을 서사의 核心軸으로 삼음으로써 민담의 屬性을 강하게 띄게 되었다. 南白月二聖談에 나타나는 민담성은 왜 이 이야기가 지역전설에서 廣布說話로 이동했는지를 해명하는 단서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구체적 정보와 사실 입증에 집착하는 법 없이 무한하게 영역을 확장해가는 二聖談의 民譚的 속성은 박연의 二聖像을 해명하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다.

28) 金承鎬(2013), 「南白月二聖의 창작지면과 서사적 의의」, <열상고전연구> 37집, 열상고전연구회, pp. 511~514.

29) 중문대사전편찬위원회(1973), 『중문대사전』 10권, p.387. “騰騰 : 緩慢貌”

30) 중문대사전편찬위원회(1973), 위의 책, 7권, p.1426. “苦節 : 於逆境之中 仍守節義之謂也”

31) 金鉉龍(1984), 『韓國古說話論』, 새문사, p.114.

32) 모우는 민담의 서사적 속성으로 명료성, 단순화, 실제적 개연성이 부재한 논리, 대비와 양극성, 후반부의 중요성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카트린 쾨게 알더, 이문기 옮김(2009),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pp.376~377).

## V. 맺음말

본고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서사적 공간인 昌原의 白月山을 벗어나 開城의 朴淵에 자리 잡게 된 연유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박연 곁에 위치한 노힐과 달달의 석불은 고려 말 이래 문인, 유람객들이 한결같이 기록에 남길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박연을 에워싼 이야기의 대부분이 龍설화로 밝혀짐에 따라 박연과 二聖 간의 설화적 연계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연을 二聖의 造成處로 지정한 점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3가지 범주에서 그 까닭을 헤아렸다. 우선 天摩, 聖居山, 그리고 大興洞의 계곡과 朴淵 등의 立地가 白月山 二聖의 修行處와 흡사한 탓에 외래전설인 노힐부득, 달달박박 이야기가 開城圈에 거부감 없이 정착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二聖談의 개성 정착현상은 神聖性和 靈驗性을 담보한다면 선행서사일지라도 편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佛家 특유의 설화 수용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觀音菩薩의 應現으로 말미암아 圓通이 성불에 이를 수 있었고 때문에 절이 세워졌다는 圓通寺 창건연기는 南白月二聖談을 踏襲한 적절한 사례로 꼽을 만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설보다는 민담성을 강하게 갖춘 남백월이성담의 양식적 속성과 결부된 것으로 보았다. 관용적이며 너그러운 心性, 엄격하고 까다로운 心性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하며 성불을 앞세운 겨루기 식의 전개는 南白月二聖談의 民譚性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양식적 특성 때문에 二聖談은 신라에서 고려로, 昌原圈에서 開城圈으로의 전이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하겠다. 朴淵에 세워진 노힐과 달달 상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조형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신라시대 발원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남백월이성담의 전승양상을 증거해주는 記標에 해당된다.

<參考文獻>

- 『新增東國輿地勝覽』 제42권, 黃海道, 牛峯縣 山川, 靈鷲山.  
南孝溫, 『秋江集』, 秋江先生文集卷之六, 雜著, <松京錄>.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제14권, 古律詩, <題朴淵瀑布>.  
白文寶, 『淡庵逸集』 제1권, 詩, <朴淵瀑布行>.  
俞好仁, 『續東文選』 제21권, 錄, <遊松都錄>.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之四, 行附錄, <天摩聖居>.  
李廷龜, 『月沙集』 제38권, 記下, <遊朴淵記>.  
一 然,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恒怛朴朴>.  
林 芸, 『瞻慕堂先生文集』 卷之二, 錄, <遊天磨錄>.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六集地理集第八卷, 大東水經 其四.  
贊 寧, 『宋高僧傳』, <唐新羅國義湘傳>.  
許 穆, 『記言』, <聖居天摩古事>.  
『佛教用語辭典』(1998), 경인문화사, p.1261.  
傳燈寺(1932), 『傳燈寺本末寺誌』, p.19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1973), 『中文大辭典』 10권, p.387.  
  
高裕燮(1988), 『松都의 古蹟』, 열화당, p.184.  
權相老(1949), 『朝鮮文學史』, 一般 프린트사, p.69.  
金承鎬(2013), 「南白月二聖의 창작지변과 서사적 의의」, <열상고전연구> 37집, 열상고전연구회, pp.511~514.  
\_\_\_\_\_ (2018), 「해안권 창사연기담의 일고찰: 문헌소재 石船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pp.55~56.  
金鉉龍(1984), 『韓國古說話論』, 새문사, p.114.  
朴熙秉(1997),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p.69.  
史在東(1996), 『佛敎系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p.552.  
李孤雲·朴雪山(1993), 『명산고찰따라』 상, 운주사, p.350.  
李 萬(1988), 「고려시대의 관음신앙」, 『한국 관음신앙 연구』, 동국대 출판부, p.157.

車溶柱(1989), 『韓國漢文小說史』, 아세아문화사, p.35.

카트린 피게 알더, 이문기 옮김(2009),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pp.376-377.

黃湏江(1986), 『新羅佛敎說話研究』, 일지사, p.66.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0일 접수되어 12월 10일까지 심사받아 12월 31일 발행

■ ABSTRACT

The No-Hill Dal-dal's stories in the Gaesung Region and The  
Transition and Implications of the folklore

Kim, Seung-ho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xplain why he came to Kaesong instead of Mt. Backwol in Changwon, which is known as the birthplace of the 'No-Hill' and 'Dal-dal' Located near Park Yeon, No-Hill and Dal-Dal's stone Buddhas are recorded in various literature by visitors and tourists. However, the stories of narrative story related to Park Yeon are all tale of dragons and there are no stories of the No-Hill, Dal-Dal. Therefore, it turns out that there is no narrative link between Park Yeon and No-Hill Dal-Dal. Nevertheless, the fact that Park Yeon was designated as a place for No-Hill and Dal-Dal seems to have its own cause. Here we tried to examine the cause in roughly three respects.

First of all, I saw that there were many foreign stories such as Cheonma Mountain, Seongju Mountain, and the valley and Park Yeon in Daeheung-dong. The phenomenon of two holy men's story settlement in Kaesong is explained by the acceptance of unique folktales by Buddhist temples who do not mind taking part in preceding books that guarantee sacredness and spirituality. The Won-Tong temple is known as a Buddhist temple built to remember when a monk who was helped by Kanyeun Buddha became a Buddha

On the other hand, I think it is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two holy men's stories of Mt. Nambaek, which is more strongly private than the legend. The battle between the two, aimed at becoming Buddha, contrasting a tolerant and generous mind, strongly suggests the folklore of No-Hill Dal-Dal story.

In the end, the story of No-Hill Dal-Dal has changed from folklore to

fanfare, and has become familiar in the Gaeseong area. In terms of narrative, the No-Hill and Dal-dal mean more than simple sculpture. It is a powerful proof that reveals the future of two holy men's story, which emerged during the Silla Dynasty.

※ key-words: No Hill-Bu deuk, Dal Dal-Park Park, the story of two saints on Mt. Nambaekwol, Park Yeon, the statue of two saints, Bodhisattva